오늘의 게시판

제 21회 남도예술은행 서화작품 토요 경매

오전 11시 진도군 운림산방

행사 〈30일〉

▲제 21회 남도예술은행 서화작품 토요 경매=오전 11시 진도군 운림산방. 한국화 17점·서예 6점·문인화 7점 등 30점 경매.

〈31일〉

▲제 11회 향일암 일출제=오후 5시 여수시 돌산읍 임포마을. '새빛, 새희망, 천년의 해오름'이라는 주제로 길놀이·일출 가요제·댄스 페스티벌·촛불의식·가족 영화제·비나리 기원굿 행사 등. 3만여명 참여 예정.

▲다도해 목포로 가자, 배타고 떠나는 해넘이·해맞이 축제=오후 5시 목포시 대반동 유달산 낙조대. 모듬북 사물놀이·색소폰연주·액운풍선 날리기·일몰 관람. 오후 7시 목포시 하당 평화광장. 굿바이 2006 콘서트·밸리댄스·띠배 띄우기·불꽃놀이 등 행사. 3천여명 참석 예정.

▲제 11회 땅끝 해넘이·해맞이 축제=오후 5시 해남군 땅끝마을. 해넘이제·땅끝 가요 콘서트·군고 시연·줄 굿·강강술래·촛불의식·달집태우기 등 행사. 1일 새벽 6시 소망연 날리기. 오전 7시 여명의 북소리. 띠배 띄우기 등 행사.

▲2006 완도 해넘이·선상 해맞이 축제=오후 3시 완도군 완도읍 대신리 청해포구 해신 촬영장. 풍물패 길놀이·풍물판 굿·송년콘서트 '완도 아리랑'·해넘이 행렬·해넘이 기원제 '아듀 2006'·띠배 띄우기·해신 신년운세 토정비결 보기 등 행사.

1일 새벽 6시30분 완도군 완도읍 정도리 화흥포항 청해진 카페리 타고 소안도 거쳐 보길도 가는 도중 횡간도 사자바위 앞에서 해맞이. 소원 성취 풍선날리기·노래자랑 등 행사.

〈1일〉

▲2007년 남열 해맞이 행사=1일 새벽 6시 고흥군 영남면 남열리 해수욕장. 전자현악 연주·소망의 풍선 날리기·떡국 및 유자차 무료 제공.

▲전파로 여는 2007 새해 희망 인사=1일 오전 9시 무등산 KT중계소내. 아마추어 무선 동호회원들이 무등산 등 전국 14곳에서 무선 통신을 이용, 새해 인사 및 희망 메시지 전달.

전시

▲2006 작은 그림 나눔전=30일까지 문화갤러리. 미술품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미술인들의 작품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전시회. 광주·전남지역 작가들의 소품(2호) 100점 출품.

▲미진회=31일까지 무등예술관. 지난 1999년 출범한 미진회의 제4회 회원전.

▲한국구상작가 6인 초대전=2007년 1월13일까지 상계갤러리. 최광선, 노재순, 조성호, 신제남, 이진표, 박형배씨 참가.

▲미술관 카바레전=2007년 1월14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 무도장인 카바레를 재해석한 작품전.

▲백화점에 간 미술가들=2007년 1월14까지 롯데백화점 광주점. 입체, 설치, 영상 작품 20여점 백화점 매장에 전시.

▲조세현 사진전- 천사들의 편지3, 사랑=2007년 1월 3일까지 롯데 화랑. 정치인 박근혜, 배우 황신혜, 가수 김장훈 등 각계각층의 유명인사들이 장애를 가진 아동,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 등 어린 천사들과 함께 한 사진 작품 30점 전시.

▲빛고을 사진회 발표전=30일까지 북구청 갤러리. 기차와 기찻길을 담은 사진 작품 전시.

공연

▲뮤지컬 및 그림자극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30일(토) 오전 11시, 오후 2·4시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

▲전남도립국악단 상설공연=30일(토) 오후 5시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

▲2006년 컬투쇼 명작-광주=31일(일) 오후 7시30분, 11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뉴스퀴즈

44. 왼쪽 발목 인대 부상으로 치료를 받았던 이 선수가 4개월 만에 잉글랜드 프로축그 프리미어리그 무대에 선발 출전했습니다.

이 선수는 지난 24일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19차전 아스톤 빌라와 원정경기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오른쪽 날개로 출전해 빠른 측면 돌파와 인상적인 슈팅을 선보이면서 65분간 그라운드를 질주했습니다.

한국인 프리미어리그 1호인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① 박지성 ② 설기현 ③ 이영표 ④ 차두리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오늘의 유머

■신혼부부

신혼부부가 첫날밤 호텔에 들어왔다. 어두어 지자 그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아파, 너무 세게 밀지 마" "참아 처음엔 다 그런거야" "아프다니까" "조금만 참으라니까. 다 끝났어"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
.

신랑이 결혼 첫날밤에 신부에게 반지를 끼워 주며 나눈 대화 였습니다.

■체인점

지하도에서 거지가 양손에 모자를 든 채 구걸을 하고 있었다. 그 앞을 지나가던 행인이 모자에 동전을 넣으며 거지에게 물었다.

행인:왜 모자를 2개나 들고 있는 거죠?

거지:요즘 장사가 잘돼서 체인점을 하나더 냈습니다.

행인:.....

■여자의 변신

함께 에로영화를 보러 갔다.

숨 막히게 진한 장면이 나오자 그녀가 내 허벅지를 꼬집으며 말했다.

연애초반:"창피해!"

연애중반:"죽인다!"

연애후반:"잘봐둬!"

생일 선물로 화장품을 사줬다.

그런데 그녀의 피부에 안 맞는 종류의 화장품이었다. 그녀가 내 귀를 끌어당기며 말했다.

연애초반:"잘쓸께!"

연애중반:"현금줘!"

연애후반:"바꿔와!"

마침내 찬스가 왔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그녀에게 키스를 퍼부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입술을 떼며 내게 말했다.

연애초반:"살살해!"

연애중반:"더깊게!"

연애후반:"장난쳐?"

■마징가

어느날 여교사가 늦게까지 일을 하고 혼자서 학교를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 때 마침 교장선생님도 차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다. 교장은 여교사 앞에서 차를 세우고 물었다.

"선생님, 같은 방향이면 타시죠" "아닙니다"

다시 교장이 타라고 하자 여교사는 교장의 차에 탔다. 차가 어느 정도 가서 신호에 걸리자 교장이 물었다.

"마징가"

여교사는 뭐라고 할 말이 없었다.

다시 계속해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에 걸리자 교장이 다시 물었다.

"마징가?"

여교사는 이번에는 말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서 조용히 말했다.

"Z(제트)"

이에 교장이 한마디 했다.

"그럼, 막낸가?"

▲엄마 내가 잡을께 〈디시인사이드〉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30일(음 11월 11일 癸巳)

子 36년생 仲人의 협조가 새롭게 나타난 격이니 매사에 성공하는 형상이다. 48년생 자신 있게 진행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요. 60년생 투자는 미루라. 72년생 모든 일에 신중 하라. 84년생 불연이면 애인과 이별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1, 38

丑 37년생 부부간의 의견다툼이 있다. 49년생 오랜만에 좋은 협조자를 얻고 급진한다. 61년생 흉이 변하여 길이 된다. 73년생 官破, 財破, 댕破가 우려된다. 85년생 모든 일에 신중함을 잃지 말아야 손이 줄어든다. 행운의 숫자 : 20, 30

寅 38년생 직업과 재물에 불리한 문제가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50년생 부부사이에 확신이 필요하다. 62년생 어려움은 없으나 지루하다. 74년생 흉과 복이 교차하고 중중하니 기도하고 안정을 취하라 행운의 숫자 : 12, 34

卯 39년생 획기적인 자기노선에서 주변의 협조까지 얻으니 금상첨화로다. 51년생 현재의 위치에서 깊은 마음으로 자기의 발자취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63년생 절대축소 절대 실리를 찾아야한다. 75년생 오늘은 평안하다. 행운의 숫자 : 22, 32

辰 40년생 신고를 당하는 수도 있다. 52년생 처음부터 자존심을 버리고 화해 쪽으로 모색하라. 64년생 있는 것도 없는 듯이 조심하라. 76년생 천극이면 대화 대손을 불면하고 상처만 남으니 복을 나누어라. 행운의 숫자 : 21, 35

巳 41년생 물고기가 변해서 용이 되는 형상이다. 53년생 점진적인 활동이 확실한 결과로 보일 수 있게 된다. 65년생 걱정을 버려라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내용이다. 77년생 중정을 잃지 말고 자기 일에 열중하라. 행운의 숫자 : 18, 28

午 42년생 희망의 진행은 계속 된다. 54년생 문서를 쥐고 있는 형상으로 제사가 순조롭다. 66년생 큰 계획으로 임해야 더욱 값진 수확을 얻으리라. 78년생 모든 일에 경이로운 진취가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14, 44

未 43년생 미리서 신중한 체면을 유지하고 침착하게 살펴보라. 55년생 고행이 우려되나 결과는 좋으리라. 67년생 타인의 중상모략 사기 기만을 만날 우려가 많으니 조심이 절실하다. 79년생 많은 조심이 필요한 하루다. 행운의 숫자 : 24,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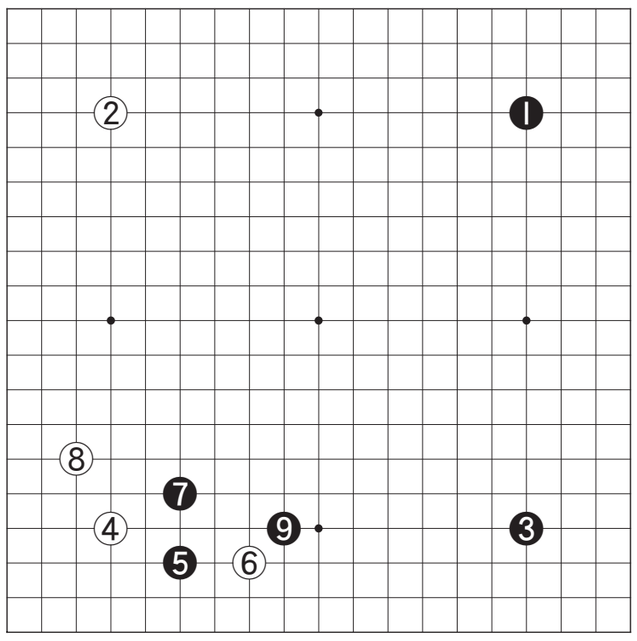
申 44년생 지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일을 취하라. 56년생 친구에게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하라. 68년생 지난 문서는 버리고 새 문서를 얻는다. 80년생 좋은 음식은 이웃과 나누어 먹어라 행운의 숫자 : 17, 43

酉 45년생 외형축소 가내 실속 재점검 하라. 57년생 서로서로 이해하면 서로가 득이다. 69년생 내일을 위해서 인내함이 좋으리라. 81년생 하는 일에 강적을 만나는 형상이니 가족간에 협조를 하면 극복한다. 행운의 숫자 : 01, 31

戌 46년생 생각하지 않은 협조자가 자래하니 적극성을 보여줘야 한다. 58년생 도둑이 예상되니 문단속을 잘하라. 70년생 마음의 변화가 생기니 기도하고 심신의 안정을 기하라. 82년생 오늘은 눈을 감고 지내라. 행운의 숫자 : 02, 42

亥 47년생 침체 속에 실리도 있으니 실망 말고 진행하라. 59년생 용기와 희망으로 추진하면 得財도 무난하다. 71년생 모든 외형은 가능한 방법으로 실리를 찾아서 축소해야 좋으리라. 83년생 오늘은 즐거우리라. 행운의 숫자 : 23, 41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제2회 전남도지사배 바둑대회

여성부 결승

전남인의 바둑한마당 1보(1~9)

白 김지은 5단 〈해남군〉 黑 김태현 5단 〈목포시〉

지난 17일 제2회 전남도지사배 바둑대회가 목포시 하당에 있는 제일여고 체육관에서 각지역 바둑동호인 7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아마최강부, 일반부, 지역단체전, 여성부, 어린이부 등 각 분야별로 총망라하여 바둑한마당을 벌였는데 이 바둑은 그중 여성부 결승전으로 여성아마최강들의 열전보를 소개한다.

김태현 5단은 82년생으로 목포출신,현재 명지대학교 바둑학과에 재학중으로 2001년 여류국수전 우승과 2003년 롯데햄,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2004년에는 피에스타배 여류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는 여류강자다.

김지은 5단은 84년생으로 김태현의 2년 후배. 해남출신으로 역시 명지대 바둑학과에 재학중인 떠오르는 여류강자로 2004년부터 3년연속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내고 있다.

이 대회는 전국체전의 상비군선발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전남출신 아마강자들이 대거 이 대회에 참가하고 있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회장은 뜨거운 열기가 가득차 있다.

여류들의 바둑이 더 강렬하며 전투적이라는 일반적인 평가처럼 흑 9가 고압적인 세력작전의 시작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광주KIXX 바둑리그 수입 '짭짤'

한국바둑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한 광주 KIXX 선수들이 바둑리그 상금랭킹 5위 가운데 1위~4위를 차지하는 등 짭짤한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2006 한국바둑리그 수입랭킹에 따르면 KIXX의 주장 최철한이 8천340만원을 벌어들여 바둑리그 출전선수 40명 가운데 가장 많은 수입을 챙겼다. 그는 상금 1천만원이 주어지는 바둑리그 MVP 후보에도 올라있다.

같은 팀의 박정상은 6천950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6천480만원을 챙긴 이재웅은 3위, 홍민표는 6천420만원으로 4위를 차지했다. 한게임의 이영구는 6천110만원으로 5위에 올랐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809>

What did you think of ~

~은 어떻든가요?

A:I tried to call Mary last night.
B:John and I went to the Symphony.
A:Oh, **what did you think of** the concert?
B:The music was great. It was very relaxing.

A:어제 저녁 Mary에게 전화하려고 했었는데요.
B:John하고 연주회에 갔었습니다.
A:아, 그 연주회, 어떻던가요?
B:대단했어요. 아주 편안했습니다.

try to~ : ~ 하려고 시도하다
symphony : 교향악단 콘서트
relaxing :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응용표현
- What did you think of the movie?
  그 영화, 어떻든가요?
- What do you think of her new job?
  그녀의 새로운 직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이오 니혼고 <809>

お大事(だいじ)に

몸조심 하세요

A:せき止(ど)めの薬(くすり)ください。
B:かぜですか?
A:はい。
B:どうぞ。**お大事(だいじ)に**。

A:기침 멈추는 약 있어요?
B:감기세요?
A:네
B:여기 있어요. 몸조리 잘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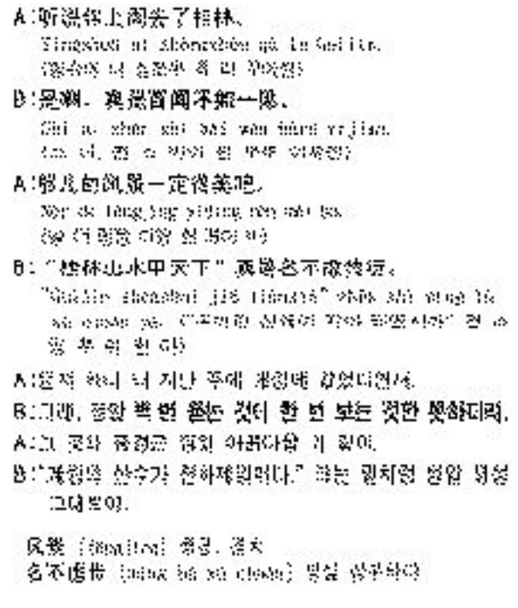
お大事(だいじ)に : 상대방이 아플 때 몸조리 잘하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는 표현, 병문안 갔다 나올 때 환자에게 さようなら대신お大事(だいじ)に를 사용 하면 됩니다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쭝구워 <527>

百闻不如一见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공자아카데미〉
www.cis.or.kr ☎ 02-3452-6775

한자 이야기 <427>

以韓制日 (이한제일)

써 이, 나라이름 한, 억제할 제, 날 일

'이한제일(以韓制日)'은 한국(韓國)을 이용하여 일본(日本)을 제어(制御)한다는 의미의 말이다. 물론 고사성어는 아니고 근래에 만들어진 성어이다. 홍콩에서 활동하는 정치평론가가 중국의 외교정책 변화를 설명하는 가운데 사용하였다.

중국은 1949년 인민공화국 창설 이래 북한쪽에 치우친 외교노선(外交路線)을 견지하여왔다. 따라서 한국중심의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런데 최근 그런 중국의 외교노선에 대폭적인 수정이 일어나고 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어 가는 일본을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 중심의 한반도 통일에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안정됨에 따라 국력이 신장하는 한반도를 강한 일본의 방패막이로 사용하겠다는 계산이다.

즉 전통적 중국의 이민족 외교정책(外交政策)인 '이이공이(以夷攻夷)'의 현대적 적용이다. 이민족의 힘을 이용하여 다른 이민족을 제어하는 것이다. 자신은 손을 대지 않고 외적들끼리 적대관계를 형성하게 하여 자국의 안전(安全)과 이익(利益)을 얻는 것이다. 다른 표현으로는 '이이제이(以夷制夷)'라고도 한다.

〈한예원(韓睿媛)〉
조선대학교 고전연구원 ☎ 230-6505